

『주간희망』의 도전과 매체전략

최미진*

1. 전후 대중잡지와 도전으로서 『주간희망』
2. 시사종합주간지 『주간희망』과 편집동인 체제
3. 편집노선과 매체전략의 변모
 - 3-1. 해설저널리즘의 강화와 매체전략의 다각화
 - 3-2. 편집노선의 부침과 매체전략의 공전(空轉)
4. 혁신의 딜레마와 『주간희망』의 의의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주간희망』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여 매체 지향과 전략을 밝히는 데 있다. 『주간희망』은 1955년 희망사에서 공격적인 잡지 연쇄전략의 일환으로 창간되었고, 언론인 위주의 편집동인 체제를 구축하여 2년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다. “신문적 잡지, 잡지적 신문”을 내건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은 『새한민보』(1947년 창간)의 저널리즘 정신을 계승한 해설저널리즘에 있었다. 그것은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며 대중독자의 지식 요구와 교양 함양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여론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주간희망』의 매체전략은 해설저널리즘의 독자성과 대중성을 강화하는 데 두었고, 초대 편집국장 시기에 보다 실험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해설저널리즘의 특성화 전략은 논평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화와 다양화를 꾀하여 수준 있는 여론 조성에 조력하였다. 대중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성 강화전략은 뉴스의 연성화, 인터뷰 기사의 확대, 대중교양과 취향의 다변화를 각각 꾀했다. 그것은 『한국일보』 일요판의 상업화 전략과 적잖은 접점을 드러내며 독자대중의 자발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2대 편집국장 시기 편집노선의 부침이 자심했고, 동인들의 이직 등 거듭되는 악재 속에서 발행 지연이 잦았다. 혁신호를 기점으로 재부상을 꾀했지만, 1958년 9월 『주간희망』은 희망사의 경영악화와 우회적 정치적 압력 속에서 예고 없이 폐간되었다.

그럼에도 『주간희망』의 의의는 1950년대 전후사회에서 특유의 주간지문화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주간지가 지향해야 할 저널리즘 정신과 당면한 상업화 요구를 창조적 기획력과 공격적 경영전략으로 대중독자와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그것은 1960년대 주간지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적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혁혁한 자양분이 되었다.

(주제어: 『주간희망』, 『새한민보』, 희망사, 매체전략, 편집노선, 동인체제, 해설저널리즘, 전문성, 대중성, 상업성)

1. 전후 대중잡지와 도전으로서 『주간희망』

희망사의 『주간희망』 창간은 이례적 행보였다. 『주간희망』은 희망사에서 1955년 12월 26일 창간되어 1958년 9월 19일 135호를 낸 후 폐간되었다. ‘주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창간 이후 130호까지 결호 없이 매주간행되었으나, ‘혁신호’를 내건 131호부터 월 2회만 발간되다 중단되었다. 최근에야 서지 사항이 드러났을 만큼¹⁾ 『주간희망』은 오랫동안 학계

1)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182-187쪽. 엄동섭은 『주간희망』의 통권 호수를 145호, 총 135책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희망사가 『주간희망』 100호 발간기념으로 한정판 “1956년도판

에서도 실체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그간 주간지 연구는 다른 매체에 비해 성과가 척박한 편이다.²⁾ 1차 문헌자료의 망실과 적잖은 규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단편적 언급 수준이지만 『주간희망』에 주목한 것은 언론학계의 일부 학자들, 이를테면 임근수,³⁾ 이중한,⁴⁾ 정진석,⁵⁾ 채백⁶⁾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정진석은 『주간희망』을 “해방 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주간지”로 고평한 바 있다. 그는 『주간희망』이 일요부록 형태의 주간지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점, 2년 이상 발행되었다는 점, 발행부수가 1만부를 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⁷⁾ 그는 4×6배판 책의 판형, 정

상·하권 합본을 특별 제작하여 “각 3,000환”에 발매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주간희망』 제99호, 1957.11.15, 50쪽; 『경향신문』, 1957.11.17, 1면. 이를 감안한다면 『주간희망』은 총 135책에 합본 2책을 더해 총 137책이 발행되었다.

- 2) 지금까지 주간지 연구는 주로 1960년대부터 주간지 붐을 주도했던 잡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대에는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고 개괄적 논의를 했던 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국문학계의 주도 아래 대중 매체론과 문화이론을 원용하여 본격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성욱, 『소소쇼-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생각의나무, 2004; 전상기, 『1960년대 주간지의 매체적 위상: 『주간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6권,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08, 225-258쪽; 김성환, 『1970년대 대중서사의 전략적 변화』, 『현대문학의 연구』 제5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53-192쪽; 연윤희, 『『선데이서울』의 창간과 대중 독서물의 재편』,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259-291쪽; 임중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제44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3, 91-136쪽; 권보드래·김성환·김원·천정환·황병주,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5; 전원근,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제2호,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15, 139-170쪽.
- 3) 임근수, 『언론과 역사』, 정음사, 1984.
- 4) 이중한, 『주간誌·紙의 사회적 기능』, 『언론중재』 1983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54-61쪽.
- 5) 정진석, 『한국잡지발달사』, 조용중 편, 『세계의 잡지』, 한국언론연구원, 1988, 49-79쪽.
- 6) 채백, 『주간잡지의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안』, 김옥조 편, 『한국의 주간잡지-제작환경 실태조사·내용분석』, 한국언론연구원, 1995, 235-296쪽.
- 7) 정진석, 『한국잡지발달사』, 조용중 편, 『세계의 잡지』, 한국언론연구원, 1988, 75쪽.

기적인 발행주기, 높은 판매성과를 주간지의 필수요건으로 본 셈이다.

지금껏 해방 이후 본격적 주간지의 기점은 1960년대 주간지 붐을 이끌었던 『주간한국』으로 삼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주간희망』을 비롯하여 주간지시대를 이끌어낸 역사는 분명히 존재한다. 1947년 8월 창간된 『주간서울』,⁸⁾ 1949년 『태양신문』 일요판과 1954년 말 이후 『한국일보』 일요판, 1951년 1월 피란지 부산에서 발간된 『주간국제』,⁹⁾ 1958년 3월 방송문화연구실에서 간행된 『주간방송』¹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주간지는 발행 주체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지만, 본격적 주간지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은 『주간서울』과 『주간희망』 정도에 그친다.

두루 알다시피 해방 이후 주간지의 발행주체는 언론자본과 국가권력

-
- 8) 『주간서울』은 1947년 8월 5일 타블로이드판으로 창간되었으며, 합동통신 계열과 서울신문 자본계열 간의 갈등으로 발행이 지지부진하였다. 1948년 10월 18일 제10호부터 『서울신문』이 판권을 인수하여 주간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발행인은 『서울신문』 사장 하경덕, 편집인은 『서울신문』 편집국장 전홍진, 인쇄인은 김원식이었다. 정진석, 『광복 후 최초의 시사 주간지에 담긴 시대상』, 서울신문사 편, 『주간서울』, 케포이북스, 2009, iii-iv쪽. 김용장의 회고에 따르면, 『주간서울』 창간 당시 멤버로 『서울신문』 사장 하경덕, 편집국장 홍기문, 상무 김무삼, 편집 김명수, 기획과 해설은 합동통신에 있던 설국환, 김봉진, 김성락, 일선기자로 자신 외에 김명식이 함께 활동했다 한다. 김용장, 『『주간한국』, 그 전과 후(상)』, 『관훈저널』 제29호, 관훈클럽, 1979, 250쪽.
- 9) 『주간국제』는 한국전쟁기 피란지 특수(特需)에 힘입어 급성장한 『국제신보』가 사세 확장의 연장선에서 창간한 시사주간지다. 1952년 1월 12일 『주간국제』는 4x6배판 20면 분량으로 창간되어 1953년 1월 31일 제18호를 끝으로 폐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여 간 18호 발행에 그칠 만큼 당시 열악한 용지난으로 정기적 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백, 『부산언론사 연구』, 산지니, 2012, 362쪽.
- 10) 『주간방송』은 1958년 3월 2일 공보실방송관리국 산하 방송문화연구실에서 편집하여 창간한 주간지다.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발행된 방송전문주간지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배포용이었다. 공보실방송관리국 발행분 통권 96호와 대한방송사업협회 발행분 통권 83호를 더해 총179호로 1961년 8월 13일 중단되었다. 『방송관련 정기간행물 약사』, 『방송』 제1호, 방송관리국, 1964.7.1, 1쪽.

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주간지 특성상 튼실한 하부구조를 요구하는 점과 맞물린다.¹¹⁾ 상당한 수준의 자본력, 인력, 조직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간지 발행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한국사회에서 주간지 발행에 언론기업이 주도권을 선점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해 왔다. 더욱이 시사주간지가 특유의 저널리즘 역량을 발휘하려면 정보의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인적 구성원을 확보한 조직체계가 요구된다. 규모 있는 잡지사라도 상품과 자본의 회전속도가 빠른 주간지 발행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간희망』의 이례성은 잡지사 주도의 시사주간지라는 점에 있다. 희망사의 시사주간지 창간은 그러한 제반 여건을 갖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전후복구기 정부의 차별적인 호혜적 지원을 받은 신문사들조차 선뜻 나서지 않았던 만큼 의외의 선택이라 할 만하다. 창간호부터 사회 주요 인사들의 내방을 홍보성 기사로 다루었던 것도¹²⁾ 『주간희망』에 대한 사회적 기대보다 회의적 시선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분위기를 방증한다.

1955년 세밑,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간희망』의 창간은 오히려 희망사의 공격적인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희망사는 출발부터 잡지사의 사활을 잡지연쇄전략에 두었고, 거기에 성공적 결과를 드러내 왔다. 1951년 7월 월간 대중잡지 『희망』 창간에 뒤이어 『여성계』와 『문화세계』를 잇따라 발간하면서 이미 우량출판사로 사회적 인정을 받을 만큼 안정적 기반을 확보했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특히 1955년

11) 채백, 『주간잡지의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안』, 김옥조 편, 『한국의 주간잡지-제작환경 실태조사·내용분석』, 한국언론연구원, 1995, 247쪽. 이외에도 채백은 정보적 기능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상품의 회전이 빠르다는 점, 분량이 적다는 점, 판형이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점을 주간지의 특성으로 들고 있다.

12) 『주간희망』 창간호부터 제5호까지 『본사내방(本社來訪)』란을 따로 설정하였고, 거기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의 방문을 일일이 나열해 가며 소개하였다. 잡지 창간호의 의례적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긴 기간 너무 상세하게 다루었다.

희망사를 비롯한 대중잡지 출판계는 새로운 재편 구도 속에 놓여 있었다. 한국전쟁기와 전후복구기에 엄혹한 냉전논리를 경유하며 출판의 발판을 마련했던 유력 잡지사들, 그러니까 희망사, 신태양사, 학원사, 삼중당¹³⁾은 1955년 들어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잡지연쇄전략에 돌입한다.¹⁴⁾ 『경향신문』의 월간잡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듯이,¹⁵⁾ 이즈음 잡지출판사들은 신문자본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문화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잡지출판의 출혈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잡지연쇄전략은 1950년대식 잡지출판문화의 재출발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든 잡지출판사들의 생존전략이자 자구적인 기업화 방안에 가깝다.¹⁶⁾ 희망사가 1955년 7월 대중지 『야담』에 이어 12월에 『주간희망』을 내놓았던 것도 유사한 맥락에 놓인다.

그럼에도 유독 희망사만 시사주간지 『주간희망』을 선택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유력 잡지출판사들의 잡지연쇄전략이 자구적인 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월간 중심의 대중잡지나 전문지에 주력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희망사 사장 김종완이 한국전쟁기 한국잡지협회를 창설하고 회장을 역임한 이력을 감안한다면,¹⁷⁾ 당시 잡지출

13) 잡지연쇄전략의 대표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신태양사는 『신태양』을 종합지로 전환한 이듬해인 1955년에 『실화』, 뒤이어 1957년에 『명랑』을 창간했다. 학원사는 청소년층을 겨냥했던 『학원』에 이어 1955년 여성 독자층을 특화한 『여원』을 창간했으며, 삼중당은 교과서와 전집류 전문 출판사에 안주하지 않고 1955년 『아리랑』 등 대중잡지 발행에 힘을 쏟았다.

14)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제30호, 상허학회, 2010, 401-406쪽.

15) 『대중잡지의 현재와 장래-5개 설문을 통한 실태』, 『경향신문』, 1955.9.15-16, 4면.

16) 정진석은 학원사의 잡지연쇄전략을 예로 들어 “잡지가 경영면에서 자립하여 기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신문과 더불어 대중매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진석, 『한국잡지발달사』, 조용중 편, 『세계의 잡지』, 한국언론연구원, 1988, 74쪽.

17) 엄동섭, 『잡지 출판인 김종완 연보』, 『근대서지』 제9호, 근대서지학회, 2014, 124쪽.

관계의 지형 변화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잡지출판사의 기업화를 누구보다 원했던 희망사¹⁸⁾가 대중지 『야담』을 창간한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해 출판사를 대표하는 매체로 시사주간지 『주간희망』을 창간한 것은 공격적인 기업화 방안만으로 그치지 않는 듯하다. 잡지사의 존망을 결정지을 위험천만한 선택이었던 만큼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내적 논리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주간희망』¹⁹⁾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여 매체 지향과 전략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주간희망』의 매체 지향과 편집인 체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간희망』만의 특성을 분명히 규명할 수 있는 자리다. 둘째,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에 따른 매체전략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간희망』의 성장 동력과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간희망』의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폐간 당시의 상황과 그간의 평가 등에 견주어 『주간희망』의 자리를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간희망』의 매체전략과 의의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 시사종합주간지 『주간희망』과 편집동인 체제

희망사는 『주간희망』의 창간 즈음 주요 일간지에 연일 대대적인 광고를 싣는가 하면 기사화하기도 했다. 『주간희망』이 “한국 최초의 본격적

18) 당시 월간 『희망』의 편집장 이상룡이 잡지출판계의 활로를 기업화로 설정하고 기대감을 표현한 바 있다. 『대중잡지의 현재와 미래-5개 설문을 통한 실태』, 『경향신문』, 1955.9.15, 4면.

19) 이 글은 합본을 제외하고 발행된 『주간희망』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자료 확보의 한계로 제21호, 제116호, 제119호 3권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인 주간지”임을 자처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매체 성격을 “정치·경제·사회·문화·오락 등에 걸쳐 수록한” “종합주간지”로 소개한다.²⁰⁾ 『주간희망』은 ‘희망’의 제호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희망사를 대표하는 잡지임을 분명히 했으며, 발행주기를 ‘주간’으로 설정하여 월간 『희망』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더욱이 『주간희망』의 창간 시점은 『희망』이 편집노선을 “독자를 위한 독자의 잡지”로 표방한 지 불과 한 달 후였다. 따라서 『주간희망』이 월간 『희망』의 주간판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주간희망』이 광고 문구로 내세웠던 “신문적 잡지, 잡지적 신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주간희망』의 매체 성격이 단순한 종합지를 넘어서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주간희망』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시사성을 매개로 신문매체와 잡지매체의 특성을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매체전략을 설정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주간희망』이 창간된 1955년은 신문매체와 잡지매체 모두 문화주의의 무게를 덜어내고 상업주의 노선을 분명히 드러낸 시기다. 이 시기는 정론성에 경도된 신문매체²¹⁾나 냉

20) 『주간희망』 발행, 『경향신문』, 1955.12.14, 4면.

21) 이 시기 신문매체는 정론성 경쟁과 동시에 증면 경쟁을 본격화하였다. 『서울신문』이 1955년 1월 1일부터 조석간 각 2면제를 단행하고 뒤이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조간 4면제를 실시한다. 이를 계기로 중앙지를 비롯한 신문매체 전반에 확대되어 1958년 이후 조석간 8면제 시대를 열어간다. 이러한 증면 경쟁은 정론성에 경도된 저널리즘의 위기 속에서 상품으로서 근대 신문자본의 전환을 내건 기업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1955년 11월 『서울신문』에 연재 중이던 김팔봉의 『군웅』 게재중지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신문매체가 견지했던 문화주의의 급격한 쇠퇴와 동시에 상업주의가 강화되었다.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화』, 『반교어문연구』 제 29집, 반교어문학학회, 2010, 264-272쪽. 이와 더불어 신문매체의 상업화와 전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문인-언론인’의 주변화 혹은 쇠퇴가 두드러진다. 최미진, 『매체 지형의 변화와 신문소설의 위상(2)』,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203-211쪽. 이렇듯 1950년대 중반 신문매체는 기업화와 전문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상업적인 대중문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문과 대중잡지를

전논리에 복무했던 잡지매체 모두 상업주의를 새로운 매체전략으로 내세우는 과정에 있었다. “신문적 잡지, 잡지적 신문”을 표방한 『주간희망』은 매체 지형의 변화를 수렴하는 동시에 투사하면서 매체 성격을 시사종합주간지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사종합지 『주간희망』은 희망사의 돌발적인 선택일까. “신문적 잡지, 잡지적 신문”은 매체의 다변화 요구로 읽히는데, 그것은 이미 희망사 내부에 내장되어 있었다. 한국전쟁기 월간 『희망』의 한 섹션이었던 ‘희망신문’이 대표적 예다. ‘희망신문’은 당시 신문 발행과 지면 구성의 방식에 따라 주요 사건과 논평, 그리고 단신들을 두루 다룬 바 있다. 그러니까 ‘희망신문’은 한국전쟁기 신문들의 2면 발행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지면의 구성 방식 또한 1면에 정치, 경제, 국제 분야의 기사들과 ‘사설’, ‘희망의 소리’, ‘희망춘추’ 등 논평들을, 2면에는 사회, 문화 분야의 기사들을 비롯한 단신과 소품 등을 각각 두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었다.²²⁾ 그것은 당시 대중독자의 정보 요구를 수렴하는 동시에 신문매체에 대한 희망사의 관심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광고문구 “신문적 잡지, 잡지적 신문”은 당대 독자대중에게 크게 낯설지 않다. 바로 1947년 6월 창간된 순간(旬刊) 『새한민보』의 표어를 그대로 인용한 까닭이다. 『새한민보』가 내건 “신문적 잡지, 잡지적 신문”은 무엇보다 발행방식에 근거한다. 순간(旬刊)은 “일간신문과 월간잡지의 중간적 존재”로, 각 매체의 형식과 내용, 질과 양 등에서 “절장보단(折長補短)의 실효”를 꾀한 발행방식이었다.²³⁾ 『주간희망』은 그러한

오가는 콘텐츠 구성과 개발이 시작되었다.

22) ‘희망신문’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호부터 월간 『희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1954년 중반에 잠시 운영되다 곧 중단되었다.

23) 『새한민보』 제1권 제3호, 1947.7.15, 2쪽. 이러한 내용은 ‘새한’의 뜻과 의미를 밝힌 ‘새한’과 더불어 제1권이 발간된 1947년 내내 실렸지만, 제목으로 ‘우리의 방침’을

실효성을 주간(週刊)이라는 발행시일과 도수(度數)로 재설정하여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체 지향에서 『새한민보』의 저널리즘 정신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주간희망』의 창간사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구태여 虛勢를 부리어 무슨 主義 따위를 뿌리삼아 얽매려 하지 않으며 억지로 假飾을 꾸미어 흔해 빠진 主張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그마한 試圖로서 한 줌의 흙을 文化的 언덕에 보태려 함이며 한 가닥 細流를 言論의 大海에 흘러 삼치려 함이 『週刊希望』을 江湖에 내어 놓는 徵意다. <중략>

원래 無限한 時間에서 하루나 한 달을 區間지음이 生活의 便利를 爲한 人間들의 造作이라면 이제 한 週間을 區間삼아 이레 동안의 大小의 事相들을 整理하고 綜合하며 分類하여 要約하는 任務는 하루 동안의 生命을 살리는 日刊이거나 한 달 동안의 事物을 料理하는 月刊과 마찬가지로 努力과 意義를 갖춘 것이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의 智識의 慾求에 符合할 수 있는 週間 世界의 總體的인 集約으로서 雜誌의인 風格과 新聞의인 精粹를 살려보려는 것이 『週刊希望』을 만드는 우리들의 希望인 것이다.²⁴⁾

『창간사』는 『주간희망』의 매체 지향과 편집노선을 분명히 드러낸다. 우선, 『주간희망』의 출발점은 저널리즘의 기본 정신을 준수하는 데 있다. 첫 문장에 드러나듯, 『주간희망』은 당대 언론의 고질적 문제인 정파성과 가식적 글쓰기와 거리를 둔다. 언론사가 특정한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불공정 편파보도를 하는 정파성과 그 연장선에서 저널리즘의 가식적 글쓰기를 배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저널리즘 본연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특정 정치세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중간과 언론의 저널리즘 정신²⁵⁾을 표

내세운 것은 제2권 제9호(통권 26호)에서였다.

24) 『첫 호를 내면서』, 『주간희망』 창간호, 1955.12.26, 3쪽.

25) 『새한민보』는 1947년 6월 중간과 언론인 설의식이 창간·발행한 잡지다. 『새한민보』는 “새한 민족의 자재한 새한문화”를 기조로 내세웠다. ‘자주국가, 민주국가, 청년국

방한 『새한민보』와 맞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정파적 신문매체 지형에 식상한 독자대중과 소통의 활로를 열 수 있는 요건이었다.

다음으로,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은 망라주의와 대중성에 기반한 해설저널리즘에 있다. 망라주의는 시사성을 매개로 한 “이레 동안의 大小의 事相들”, 즉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사건들의 보도와 논평을 두루 다룬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중성은 독자대중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바르고 빠르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수준을 맞춰가는 데 있다. 이는 “보다 더 많은” 대중독자의 “智識의 慾求에 符畵”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편집노선은 『창간사』의 문면에 “總體的 集約”, 즉 다양한 사건과 난삽한 논평들에 대해 “整理하고 綜合하며 分類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물론 자칫 기사들의 단순한 재배열에 그치는 백화점식 객관저널리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은 한 단계 나아간 해설저널리즘에 두었다. 해설저널리즘은 기사들을 여러 관점에서 쉽게 해설하여 새로운 의미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간희망』은 제11호부터 편집방침을 “해설강화”에 두면서 이러한 면면을 본격화했다.²⁶⁾ “『뉴스』의 종합적 정리에서 중점적인 취급으로 변경”하고 “넓이와 깊이를 지닌 『뉴스』의 해부”에 집중한 것이다.²⁷⁾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이 해설저널리즘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편집후기』를 통해 명시된다.²⁸⁾ 이러한 해설저널리즘

가에 기틀을 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때 “자재(自在)한”의 표현은 특정 이념과 정파에 구속되지 않는 중간파 언론의 저널리즘 정신을 함축한다. 『새한노래작곡모집』, 『새한민보』 제2권 제9호(통권 26호), 새한민보사, 1948.4.21, 2쪽.

26) 『편집후기』, 『주간희망』 제11호, 1956.3.5, 3쪽.

27) 『편집후기』, 『주간희망』 제14호, 1956.3.26, 54쪽.

28) ‘해설저널리즘’이라는 용어는 2대 편집국장 김원기가 『편집후기』에서 처음 사용했다. 『편집후기』, 『주간희망』 제59호, 1957.2.8, 50쪽. 용어의 사용 시기는 다르나, 이 글에

은 논평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던 『새한민보』의 편집노선²⁹⁾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초대 편집국장 김용장이 전범으로 삼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과 ‘NEWSWEEK’의 편집노선과도 일맥상통한다.³⁰⁾ 따라서 해설저널리즘은 1960년대 시사주간지의 바람직한 상(像), 즉 “한 주일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일간지에서 얻을 수 없는 자세한 해설 기사 등을 취급하여 더욱 더 알기 쉽게 해주는 주간지”³¹⁾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주간희망』의 지향성은 “雜誌的인 風格과 新聞的인 精粹”를 살리는 데 있다. 『새한민보』가 그러했듯 『주간희망』은 “신문적 잡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아갈 바를 “한 줌의 흙을 文化의 언덕에 보태려 함이며 한 가닥 細流를 言論의 大海에 흘러 습치려 함”에 둔다. 『주간희망』이 문화사업과 『새한민보』와 같은 여론문화 조성 매체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주간희망』은 “시사성을 매개로 한 문화성을 강조한 가운데 대중계몽과 국내외 새로운 지식을 보급·소개하는 대중교양의 거점으로 기능한 전통”³²⁾을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살폈듯이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은 『새한민보』의 저널리즘 정신을 계승한 해설저널리즘에 있다. 즉, 『주간희망』은 저널리즘

서는 매체의 편집노선을 분명히 부각시키고자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9) 『새한민보』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넘어 대안 마련과 여론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편집후기』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은 한 예이다. “먼저 알자. 눈앞에 벌어진 사태가 어떤 꼴을 하고 어떻게 어느 곳으로 구비쳐 흘러가는가를 올바로 □간에 새겨 안다는 것이 곧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임을 알자. 『새한』은 더욱 힘써 국내외 동향을 가리키는 정확 무비한 “바로메-터”가 되리라.” 『편집후기』, 『새한민보』 제2권 제10호(5월 상·중순호, 통권27호), 새한민보사, 1948.5.11, 35쪽.
- 30) 김용장, 『주간한국』, 그 전과 후(상), 『관훈저널』 제29호, 관훈클럽, 1979, 245쪽.
- 31) 조용운, 「즉흥·선정에만 급급-〈週刊紙(誌)〉」, 『출판학연구』 제19호, 한국출판학회, 1974, 67쪽.
- 32) 이봉범, 「잡지미디어, 불온, 대중교양-1960년대 복간 『신동아』론」, 『한국근대문화연구』 제27호, 한국근대문화회, 2013, 394쪽.

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중독자의 지식 요구와 교양 함양에 이바지함으로써 새로운 여론문화 조성을 지향한 매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간희망』의 이러한 지향성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잡지 간행에 요구되는 법적, 경제적 요건을 차치하더라도 당대 문화 사업은 현실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었다. 언론출판계가 문화 창달과 계도적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비등하였지만, 당면한 현실은 손익분기점을 뛰어넘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적 운용 과정에서 표면화된 걸림돌은 운영진과 편집진의 상보적 관계 형성에 있으며, 당시 잡지연쇄전략의 결과 본지와 자매지와의 관계도 문제적일 수 있었다.

『주간희망』은 운영과 편집 면에서 서로 다른 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적 측면에서 『주간희망』은 『희망』과 어느 정도 협업체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희망사의 운영체제가 『주간희망』의 인쇄·발간·보급·판매 등 제반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높은 자금회전력에도 초창기 주간지의 손실부담을 지탱하여 장기간 발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주간희망』 창간 당시 실무를 담당할 인적 인프라 구축에 희망사 사장 김종완과 편집주간 송지영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들은 『새한민보』를 창간한 설의식의 저널리즘 정신에 뜻을 함께했다. “故小梧 薛義植先生の『週刊誌名』인 『신문같은 잡지』를 주간희망의 성격에서 십분 발휘해 보려고 애쓰시던 사장 김종원씨의 열정이 그 당시의 동인들을 채찍질하여 더욱 열을 내었던 것”³³⁾이라는 조덕송의 회고담이 이를 방증한다. 설의식은 한국전쟁기 『희망』에 여러 차례

33) 조덕송, 『옛 가정의 생각』, 『주간희망』 제105호, 1957.12.27, 55쪽.

글을 발표했는가 하면,³⁴⁾ 『국제신보』에서 송지영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³⁵⁾ 그렇게 돈독한 친분 관계에 있었던 까닭에 그의 유지(遺志)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³⁶⁾ 여기에 송지영의 언론계 인맥들이 더해진다. 송지영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하여 해방기 소설가로 활동하는 동시에 여러 신문사의 요직을 두루 거쳤던 언론인이다. 특히 그는 1949년 『태양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일했으며, 한국전쟁기에는 『국제신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간지 발간을 실험하거나 목도한 바 있다. 이러한 면면은 그가 『연합신문』 폐간 후 돌연 언론사가 아닌 희망사로 옮겨 앉고, 희망사가 얼마지 않아 주간지 창간에 뛰어들었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는 이승만 정권이 냉전 논리를 앞세워 언론출판계, 특히 신문매체에 대한 억압을 일상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론장의 출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반면 언론 통제와 탄압으로부터 어느 정도 비켜 서 있던 잡지사는 시사주간지를 손쉽게 발간할 수 있었다. 송지영은 『태양신문』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

34) 『희망』의 결호가 적지 않은 가운데 현재 확인 가능한 설의식의 글은 2편에 불과하다. 「화동시대의 세상-신문30년의 회상」은 부제에 걸맞게 설의식이 『동아일보』 신입기자 시절의 편린에 집중해서 기술하였다. 설의식, 「화동시대의 세상」, 『희망』 1953년 1월호, 18-21쪽. 연재물이었지만 설의식의 장기출장으로 인해 1회로 중단되고 말았다. 「편집후기」, 『희망』 1953년 2월호, 74쪽. 그리고 「법두절미언(法頭折尾言) (2)」는 짤막한 시평에 해당되며, 횡수를 통해 연재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설의식, 「법두절미언」, 『희망』 1953년 9월호, 62-63쪽.

35) 송지영이 『국제신보』에 근무할 당시 설의식은 광복산, 오종식 등과 편집진으로 일했다. 채백, 『부산언론사연구』, 산지니, 2012, 347쪽.

36) 월간 『희망』은 한국전쟁기 이래 『새한민보』 특유의 저널리즘을 재매개한 기사를 다룬 바 있다. 「현역언론인 自選신문사설 4인집」이 대표적인 예인데, 유명 언론인 고재욱, 오종식, 류광렬, 김영진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설을 가려 뽑아 그 “논설의 논설”을 기술한 것이다. 이는 『새한민보』의 “여론의 여론”을 재매개한 동시에 진일보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역언론인 自選신문사설 4인집」, 『희망』 1953년 7월호, 32-35쪽.

용장을 편집국장으로 끌어들이었으며, 『연합신문』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조덕송을 취재부장으로 발탁했다.

그러나 『주간희망』은 시사종합주간지의 특성상 편집 면에서 대중월간지들과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희망사는 1955년 4월 발행인과 편집진을 이원화하였고, 이때 편집주간으로 취임한 송지영³⁷⁾은 『주간희망』 창간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 결과 『주간희망』은 언론인 중심의 편집동인 체제로 구성되었다. 당시 『희망』 발간을 주도했던 문인 혹은 문인-언론인의 면면을 소상히 확인할 수 없는데, 그것은 사무실이 같아도 『주간희망』이 독자적 편집방식을 고집했음을 시사한다.

『주간희망』의 창간 멤버는 총 10명이다. 구체적인 진용은 편집국장 김용장, 편집부장 김원기, 취재부장 조덕송, 외신부장 서광운, 사진부장 이병삼, 편집부원 임진수, 한중호, 이옥순, 취재부원 이순오, 삽화가 임창이다.³⁸⁾ 이들은 당대 언론계에 부상한 실력자들이었다. 편집국장 김용장은 해방기부터 주간지 창간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이 있던 언론인³⁹⁾으로, “『주간희망』의 설계자”이자 “개척자”⁴⁰⁾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취재부장 조덕송은 『조선통신』 신참기자 시절 4·3사건 목격기로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냈고, 한국전쟁기 『국제신보』 기자에 이어 『연합신문』 사회부장을 역임하였다.⁴¹⁾ 외신부장 서광운은 동경대 출신으로 1954년

37) 송지영, 「권두언-새로 맺은 인연」, 『희망』, 1955.4, 35쪽.

38) 창간 멤버들의 숫자만 밝혀두었을 뿐 구체적인 면면을 적시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주간희망』의 창간 멤버들은 필자가 재구성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39) 김용장은 『주간서울』 초창기부터 일선기자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이력은 『태양신문』으로 옮긴 후 1949년 6월부터 발행한 ‘일요부록판’과 『한국일보』 창간멤버로서 1954년 11월에 시작된 ‘일요판’ 발간으로 이어졌다.

40) 「편집후기」, 『주간희망』 제57호, 1957.1.25, 50쪽.

41) 조덕송은 『국제신문』 사회부장 김현제의 제의로 기자로 활동했으며, 이때 편집국장 정국은, 주필 송지영과 인연을 맺었다. 한국전쟁기 피란지 부산에서 양우정이 경영

『한국일보』에 입사, 『주간희망』으로 자리를 옮겨⁴²⁾ 외신 뉴스의 틀을 잡았다. 사진부장 이병삼은 1952년 결성된 ‘한국사진작가협회’ 간사로 활동할 만큼 지명도 높은 사진가였다. 뒤이어 취재부원 차태진⁴³⁾과 편집부원 박갑천⁴⁴⁾이 합류하여 12명의 동인체제가 구축되었고,⁴⁵⁾ 이로써 『주간희망』의 발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간희망』의 편집동인 체제는 두 가지 난제를 내장하고 있었

-
- 하던 『연합신문』의 사회부장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주필은 정국은, 편집부국장은 김현제였다. ‘정국은 간첩사건’은 1953년 8월 31일 남조선노동당 중앙특수부 소속 정국은이 국가 기밀누설 등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으로, 사장 양우정을 비롯한 『연합신문』 주요 인사들과 흥택회를 비롯한 경찰계 인사들도 검거되었다. 조덕송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누명을 벗었고, 그 후 일터를 잡은 곳이 송지영이 주간으로 있던 『주간희망』이었다. ‘정국은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만하다. 김규동, 『대한민국 최초의 간첩 조작 사건』, 『나는 시인이다』, 바이북스, 2011, 292-294쪽.
- 42) 서광운이 『주간희망』을 선택한 계기와 근무기간은 분명하지 않다. 『한국일보』 창간 멤버였던 김용장의 인연이 작용했을 것이라 짐작될 뿐이다. 『한국일보』로 복귀한 서광운은 외신부 차장과 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한국 최초의 과학전문기자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과학소설 번역과 창작에 힘쓰는 등 과학소설 붐에 크게 기여하였다.
- 43) 차태진(1924-2003)은 평양 출신으로 해방기 월남하여 1949년 서울신문학원을 졸업하고 『한성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1953년 『연합신문』 문화부장을 역임했으며, 1954년 수도영화사 기획실장으로 국내 첫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생명』을 제작했다. 그 이후 『연합신문』에서 맺은 동료들과의 인연으로 『주간희망』에 합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재직기간은 정확하지 않다. 희망사를 이직한 이후 다시 영화 관련업종에 종사하다 1960년 극동흥업영화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하며 <김양국의 딸들> 등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뒤이어 연극연출가로 데뷔하기도 했다.
- 44) 박갑천은 1932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하였고,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에 『주간희망』 편집부에서 교정을 담당하였다. ‘설량자’라는 필명으로 『閑話休題』란을 통해 바른 어법과 교정에 관한 소회를 기술하였다. 졸업 후 『한국일보』에 입사하여 『소년한국일보』 편집부장,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수필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 45) 『주간희망』 창간 멤버는 논자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나는데, 김용장은 10명, 서광운은 12명으로 각각 회고하고 있다. 김용장이 엄밀한 의미에서 창간 당시 상황에 집중했다면, 서광운은 곧이어 합류한 동인들까지 포함했던 까닭이다. 『편집후기』, 『주간희망』 제8호, 1956.2.13, 2쪽; 서광운, 『고역과 고역이』, 『주간희망』 제105호, 1957.12.27, 51쪽.

다. 하나는, 발행 간격에 비해 인적 구성원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정기간행물인 주간지의 존재방식은 발행 기일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획과 취재, 편집과 교정, 인쇄와 보급 등을 주별로 무리 없이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12명 동인체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동반한다. 무엇보다 희망사는 신문사와 달리 독자적인 조사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여러 통신사들과 협약을 맺은 흔적을 찾기도 힘들다. 시사종합주간지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사부를 설치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류하여 보관하고 기사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공급해 주는 통신사와의 협약이 필요하다. 이즈음 희망사는 조사부의 설치 필요성을 인지했지만⁴⁶⁾ 현실화하지 못했다. 잡지사의 주력매체가 대중월간지였던 까닭에 조사부나 통신사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취재 인력의 절대적 부족은 『주간희망』의 지속적 발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동인체제에서 취재부는 단 3명에 불과한데, 화제성 있는 새 정보를 수집했다 해도 취재에 투입할 인원이 너무 적었던 셈이다. 동인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는, 동인들의 이직(移職)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점이다. 동인들이 대부분 신문사 기자 출신이라는 점은 『주간희망』의 강점이자 약점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잡지사에서 시사종합주간지를 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잡지사에 대한 동인들의 강한 소속감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당대 언론계가 신문/잡지로 위계화되어

46) 『주간희망』이 창간되기 이전부터 희망사는 “큰 신문사의 조사부처럼 풍부한 자료가 없는 것”을 당면문제로 꼽고 있었다. 『대중잡지의 현재와 장래』 5개 설문을 통한 실태, 『경향신문』, 1955.9, 4면.

있었고, 사회적 인식 또한 다르지 않았다. 신문과 신문기자를 지사(志士)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히 강했던 반면,⁴⁷⁾ 잡지는 『사상계』와 같이 정평이 나 있는 일부 잡지들을 제외한다면 신문에 비해 평판이 낮거나 폄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용장이 희망사로 이직했을 당시 “왜 좋은 신문사에 있다가 그까짓 주간지에 갔어?”라는 친구의 발언은 대표적 예다.⁴⁸⁾ “좋은”과 “그까짓” 사이의 언표는 당시 신문사와 잡지사 간의 사회적 위계와 인식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동인들 대부분은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고향”인 신문사에 토대를 두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이직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김용장과 서광운이 이전 근무지였던 한국일보사로 속속 복귀하였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직 양상은 『주간희망』의 발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주간희망』의 발행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악전고투의 과정이었던 만큼 동인들의 숙련되고 수준 있는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간희망』의 편집동인 체제는 변동의 폭이 컸다. 초대 편집국장 김용장이 제55호를 끝으로 퇴임하였고, 편집부장 김원기가 2대 편집국장을 맡았다. 초대 취재부장 조덕송은 이직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후임은 차태진이 부국장을 겸임하여 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태진이 영화사로 옮겨가 3대 김종희, 4대 서운성이 각각 취재부장을 역임했다. 외신부장도 서광운 후임으로 황운헌이 담당했다. 실무를 담당했던 부원들의 이동도 적잖았다. 『주간희망』 100호 기념호를 발간했던 1957년 12월 27일 당시 상황에 국한해 보자. 초대 편집부원 임진수, 한종호,

47) 장은미,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제도화와 남성적 재공간화 과정』,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7, 86-119쪽.

48) 김용장, 『『주간한국』, 그 전과 후(상)』, 『관훈저널』 제29호, 관훈클럽, 1979, 246쪽.

박갑천이 모두 이직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장덕례, 권혁기도 마찬가지였다. 초대 취재차장 김형근과 뒤에 합류한 취재부원 이영일도 이직했으며, 외신부원으로 합류했던 김용철, 이병호, 송충래, 김명주도 그러했다. 초대 편집동인 체제에서 잔류한 인원은 김원기, 이순오, 김용순, 임창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편집동인 체제는 이들 외에 취재부장 서운성, 취재차장 양기수, 외신부장 황운현, 그리고 훨씬 이후에 합류한 조찬선, 마옥, 염명순, 김종배, 이견섭으로 구성되었다.⁴⁹⁾ 총12명의 편집동인 체제는 여전했지만 인적 이동이 잦아 불안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간희망』의 발행은 힘겨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본다.

3. 편집노선과 매체전략의 변모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은 해설저널리즘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끊임 없는 자기갱신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것은 시사종합주간지로서의 이상과 잡지사의 제반현실, 그리고 독자들의 반향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냉전시대를 관통하던 당대 정치사회와 매체상황 등 맥락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그리고 구체적 실제로서 매체전략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 주간지”의 이정표에 걸맞은 성장 동력과 한계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주간희망』은 편집동인 체제로 운영되었지만 불가피하게 매체전략의 조정과 수정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때 편집노선과 체계, 그리고 매체전략을 조정하는 주도적 역할은 많은 부분 편집국장 이 맡았다. 초대 편집국장의 설계만큼이나 그런 편집국장의 교체는 『주간희망』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서는 편집국장

49) 『편집후기』, 『주간희망』 제106호, 50쪽.

의 교체에 따른 『주간희망』의 편집체계와 매체전략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3-1. 해설저널리즘의 강화와 매체전략의 다각화

초대 편집국장 시기 편집노선은 『주간희망』이 지향한 해설저널리즘의 시험과 정착에 집중된다. 김용장은 창간호부터 제13호까지 진두지휘하였으며, 이때 해설저널리즘을 시험하고 조정하여 편집체계의 틀을 마련한다. 초창기 편집체계⁵⁰⁾는 지면구성 면에서 기타(차례, 표지 등)를 제외한 기사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였던 반면 화보와 광고 비율은 미미했다. 유형별 기사는 시사 49%, 문화 31%, 오락 15%, 기타 5%로 드러난다. 이를 기사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일반취재 70%, 논단칼럼 25%, 투고기고 2%, 인터뷰가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사 부분에 한정하면 일반취재 38%, 논단칼럼 52%, 투고기고 5%, 인터뷰 5%로 다르게 드러난다. 특히 일반취재에서 요약적 보도기사의 비율이 50%에 달하는데, 이는 『주간희망』의 고정란에서 43%에 해당된다.⁵¹⁾ 구체적으로는 ‘주간일지’, ‘작주7대뉴스’, ‘금주의 인물’, ‘조류(潮流)’가 이에 해당된다. ‘주간일지’가 『새한민보』의 “○순의 메모”를 참조하여⁵²⁾ 이번 주의 국내

50) 편집체계는 양적 연구방법에 따른 주간지 내용분석 방식을 따르되, 『주간희망』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이종경, 『내용분석』, 『한국의 주간잡지-제작환경 실태조사·내용분석』, 한국언론연구원, 1995, 173-234쪽.

51) 혁신호 이후를 제외하면, 『주간희망』 발행의 전 기간에서 고정 섹션은 ‘주간일지’, ‘작주(昨週)뉴스’,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금주의 인물’, ‘만화’, ‘영화소개’로 총 6개다.

52) 『새한민보』는 표지 하단에 이번 달과 다음 달의 달력 사이에 “○순의 메모”를 제시하였다. “○순의 메모”는 발행주기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며, 내용으로 24절기와 기념일, 주요 행사 등을 고지하였다. 『새한민보』 제2권 제9호, 새한민보사, 1947.4.12, 1쪽.

외 주요 행사를 고지한 것이라면, ‘작주7대뉴스’는 『한국일보 일요판』⁵³⁾의 “작주의 10대뉴스”를 재매개(remediation)하여⁵⁴⁾ 주요 사건을 가려 뽑아 발행주기에 걸맞게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금주의 인물’ 또한 『한국일보 일요판』을 재매개하여 사회 각계 명사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조류’는 당시 특정한 사회적 쟁점을 가려 뽑아 이에 대한 유력 신문사들의 사설 혹은 논평을 부분 발췌하여 수록한 것인데, 이는 『새한민보』의 ‘여론의 여론’⁵⁵⁾란을 재매개한 것이다. 이렇듯 『주간희망』은 『새한민보』의 편집노선을 계승하는 동시에 이색적 지면을 재매개하였다. 여기에 『한국일보 일요판』도 재매개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편집국장 김용장의 전 근무지에서 실무경험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은 해설저널리즘의 정착 단계임에도 편집체계의 변폭이 크지 않다. 오히려 『주간희망』은 해설저널리즘의 독자성과 대중성을 강화하는 매체전략을 통해 다양한 여론 조성에 집중한다.

우선, 해설저널리즘의 특성화 전략은 논평의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전문화와 다양화를 꾀하여 수준 있는 여론 조성에 노력하고자 했다. 창간 초기부터 김용장은 “신문적 지면”을 표방하였지만 보도보다 논평에

53) 『한국일보 일요판』은 1954년 11월 7일부터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발행한 ‘잡지적 신문’이다. 발행편집 인쇄인은 장기영, 주필 오종식, 편집국장 이진혁, 공무국장 김원식이다. 지면은 1면에 목차와 특집, 2면 정치, 3면 국제, 4면 경제, 5면 학예, 6면 스포츠, 7면 오락, 8면에 가정을 구성하여 각각 다루었다.

54) 『한국일보 일요판』의 “작주십대뉴스”는 제1면 하단에 한 주일간의 주요 사건을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작주의 십대뉴스」, 『한국일보 일요판』, 1954.11.7, 1면.

55) 박용규, 「미군정기 중간과 언론 설의식의<새한민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언론』 제2호, 한국언론정보학회, 1992, 186쪽. 마찬가지로 『주간희망』은 『새한민보』의 ‘자료의 자료’란에 버금가는 자료를 오랫동안 실은 바 있다. ‘자료의 자료’란이 한국 문제의 국제적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국제회담의 내용이나 성명서 등을 실었다면, 『주간희망』은 국제적십자사에서 안부탐지를 요구한 「남북인사명단」을 제28호부터 제81호까지 실어 한국전쟁기 인적 재편의 문제를 환기시켰다.

비중을 두었다. 해설저널리즘의 전문화를 꾀한 대표적 지면은 ‘주간시평’이다. 『희망』이 ‘월간시평’을 잠시 선보인 데 그쳤다면, 『주간희망』의 ‘주간시평’은 더 전문적이고 전면화된 양상을 띠었다. ‘주간시평’은 한 주 일간 국내외 사건의 쟁점을 정치, 국제,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4면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참여한 전문가로는 정치 분야에 우인(雨人) 송지영 등이, 경제 분야에 한국경제학회 핵심 멤버인 신태환, 고승제, 최호진, 황병준이, 국제 분야에 언론인 고제경, 이명림 등이, 사회 분야에 편편자,⁵⁶⁾ 정충량 등이 각각 도맡았다. 그리고 해설저널리즘의 다양성을 꾀한 대표적 지면은 앞서 살핀 ‘조류’와 ‘주간춘평’을 들 수 있다. ‘주간춘평’은 창간호부터 신문에 대한 짙막한 논평을 다루었는데, 『새한민보』의 ‘신문의 신문’란과 닮아 있다.⁵⁷⁾ 그 외에도 사회비평을 강화한 지면들, 그러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와 ‘무화과’에 뒤이어 ‘만상록’, ‘고쳐야하겠습니다’ 등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해설저널리즘의 강화는 보도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특집 기사의 비중이 늘고 일반취재 기사도 차츰 여럿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이후 인기 있는 논평란들은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 무렵 『주간희망』은 정치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다. 대선 직전 ‘5·15선거’ 릴레이 특집을 마련하였는데, 자유당에 이어 민주당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무산되었다. 당시 분위기를 차태진은 “대외의 특수사정으로 다른 정당은 취재치 못하게 되었”⁵⁸⁾다고 술회한 바 있

56) 집필자는 ‘편편자(片片子)’로만 기명(記名)되어 있을 뿐이지만, 다음의 이유로 조덕송이라 추정한다. 사회 분야의 쟁점을 잘 가려 뽑아 스스럼없이 필력을 선보인 점, 그가 초대 취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 이직 추정시점에 필진이 바뀌었다는 점 때문이다.

57) ‘주간춘평’은 창간호부터 제13호까지만 운영되었다.

58) 차태진, 『홍분 속의 생활』, 『주간희망』 제105호, 1957.12.27, 56쪽. 차태진은 같은 글에서 당시 상황을 “보도의 공정성을 잃었을 때”로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선

다. 무산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유당에서 정치적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 여파로 『주간희망』은 고정 독자층이 1/3수준으로 줄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⁵⁹⁾ 편집 면에서도 논평란들, 즉 단평 ‘유상무상’을 시작으로 시간적 간극을 두고 ‘만상록’과 ‘주간시평’도 폐지되고 만다. 대신 외부 인사들의 전문성 있는 기고가 급증한 가운데 심층 취재한 르포가 이따금 실렸다. 이와 함께 ‘뉴스의 저류’와 같은 종합적 정리 수준의 외신 보도가 안착하였다. 이렇듯 『주간희망』은 해설저널리즘을 통해 정치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하였지만, 대내외 사정으로 초기에 표방한 매체의 지향점과 특성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다음으로, 해설저널리즘의 대중성 강화 전략으로 독자대중의 접근성을 높여 자발적 여론 구성에 조력하고자 했다. 뉴스의 연성화(軟性化), 인터뷰 기사의 확대, 대중교양과 취향의 다변화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첫째, 뉴스의 연성화는 기획기사 혹은 심층기사에 인간의 경험담을 삽입하여 독자대중의 이해를 돕는 방식이다. 뉴스의 연성화는 당시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독자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뉴스스토리’와 ‘금주의 화제’가 대표적이다. ‘뉴스스토리’란은 창간 초기 잠시 시도되었다가 제11호부터는 ‘금주의 화제’란으로 활성화되었다. ‘금주의 화제’는 1949년 10월 『새한민보』가 편집방침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주로 외신 토픽을 번역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일보』 일요판에서 ‘세계의 화제’로, 다시 『주간희망』에서 ‘금주의 화제’로 재매개되었다. 특히 『주간희망』의 ‘금주의 화제’는 신설

선거정국에서 “자유당특집호 주간희망은 대구지구로부터 고스란히 반품”되었다고 밝혀 『주간희망』 발간에 타격을 준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59) 김용장, 『『주간한국』, 그 전과 후(상)』, 『관훈저널』 제29호, 관훈클럽, 1979, 246쪽.

당시부터 외신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뉴스와 병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테면 제11호의 ‘금주의 화제’는 『‘허리우드’로 가는 고아들』과 『외국 감옥에 美병사 81명』을 다루었다. 전자는 1·4후퇴 당시 딘 헤스 대령의 ‘고아공수작전’이 자서전 〈전송가〉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화되면서 당시 생명을 구한 고아들이 영화 출연을 위해 헐리우드로 가게 된 국내 소식을 실었다면,⁶⁰⁾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외국주둔이 급증하면서 범죄도 늘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는 국외 소식을 전하고 있다.⁶¹⁾ 이러한 ‘금주의 화제’는 해설저널리즘의 난해성과 건조한 어법을 탈피하여 독자대중의 자발적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문제는 ‘금주의 화제’가 ‘뉴스스토리’와 더불어 확대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데 있다. 두 코너의 성격이 차별화되기 힘든데다 교차배치와 부제 삽입을 병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코너는 대중성에 힘입어 비교적 꾸준하게 다루어졌다.

둘째, 인터뷰 기사의 확대는 시의성 있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심층 취재에 이야기 기법을 더한 기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방식이다. 창간 초기 『주간희망』의 인터뷰 기사는 고정란인 ‘금주의 인물’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정관계 인물들이 6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정치편향성에 대한 독자대중의 비판이 제기되자 『주간희망』은 제16호부터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5분간 인터뷰’를 마련하였다.⁶²⁾ 독자대중과의 친화적 소통 가능성을 새로운 뉴스가치로 삼은 것

60) 『‘허리우드’로 가는 고아들 구해 준 은인의 영화에 출연』, 『주간희망』 제11호, 1956.3.5, 16-17쪽.

61) 『외국감옥에 美병사 81명 골치 앓는 해외주둔군의 범죄』, 『주간희망』 제11호, 1956.3.5, 20-21쪽.

62) ‘5분간 인터뷰’는 평범한 시민들이 이름과 나이, 직업을 밝히고, 특히 자신의 직업 이력과 특징, 소회 등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다. 참여한 시민들의 직업은 우편집배원, 인쇄공, 복덕방 종사자, 조산원, 장의사업자, 기생, 안마사, 애견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다. 그리고 『주간희망』의 대표적 대담인 ‘희망방담’을 제35호부터 신설·운영하였다. ‘희망방담’은 전문가 조경희를 내세워 사건에 대한 제3자의 해설로서 객관성을 강조하고 보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해설 저널리즘의 대중적 변형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화보와 단평으로 구성된 ‘한국의 연륜’을 제42호부터, 이를 대신한 ‘한국의 일군’을 제49호부터 각각 게재하였다.⁶³⁾ 이렇듯 『주간희망』에 게재된 일련의 인터뷰 기사들은 인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 인터뷰는 사건을 보다 실감나게 보도하여 신빙성을 높이기보다 인물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를 다루는 대중적 성격이 강하다.⁶⁴⁾ 이는 대중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뉴스의 연성화 전략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셋째, 대중교양과 취향의 다양화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상식적 수준의 지식과 문화적 취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독자대중에게 전달하거나 새롭게 환기시키는 방식이다. 문화·오락 분야의 보도 기사와 문예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간희망』에서 문화 분야는 과학, 의학, 종교, 학술, 신문, 방송, 음악, 미술, 무용, 서평, 스포츠, 만화, 영화, 소설, 수기 등을 두루 포함한다. 특징적인 점은 특정 분야에 치우침 없이 상식적 수준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희망』을 비롯한 대중월간지에 견준다면 『주간희망』의 문화면은 과학과 스포츠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문학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문학 분야는 연재물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편소설 2편과 수기 1편을 일정하게 실는 정도에 그친다.

이 코너는 제64호를 끝으로 폐지되었는데 제33호만 휴재(休載)될 만큼 독자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63) ‘한국의 연륜’이 시인 오상순을 필두로 각계 저명인사를 다루었다면, ‘한국의 일군’은 38세의 공보실장 오재경 등 부제 “30대”에 걸맞게 각계에서 부상하는 인물들을 ‘한국의 연륜’보다 지면을 확대하여 소개하였다.

64) 김소형, 『한국신문의 인터뷰기사 도입과 변천에 관한 연구: 1890-1990년대』,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8-9쪽.

그럼에도 장편소설은 명망 있는 대중소설가, 이를테면 조풍연, 정비석, 장덕조, 박계주 등을 내세우고, 매회 ‘지난 즐거리’를 제시하여 독자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오락 분야는 현대인의 다양한 취향과 새로운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바둑, 장기, 사진, 꽃 등의 취미생활 뿐만 아니라 ‘꼬마상식’과 ‘주부수첩’ 같은 코너를 통해 생활상식을 주로 다룬다. 특히 신설된 ‘여행가이드’는 “신혼여행, 하이킹, 가족놀이터”로 섹션을 나누어 목적과 방식에 따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정보가 우세한데, 그것은 『주간희망』의 발행일을 금요일로 전환시킨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이 매체는 인쇄공, 우편집배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공략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해설저널리즘의 저변 확대 전략으로 편집과 운영의 측면에서 독자대중과 소통방식을 다변화하고자 했다. 우선, 편집 면에서는 정보 공개와 독자란의 다양화가 특징적이다. 정보 공개는 신뢰성을 토대로 실수요자인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창간 초기 김용장은 『편집자의 편지』를 통해 『주간희망』의 판매부수와 그 추이를 공개하였다. 이는 『주간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객관적 수치로 환산시켜 독자대중에게 신뢰감을 부여하여 실수요자로 연계시키는 방식이다. 그리고 독자란의 다양화는 여느 월간지와 달리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게재하는 방식이다. ‘독자석’을 제27호부터 신설했지만, 여기에 게재된 글들은 꽤 다양하다. 주로 독자란은 콩트와 같은 문예물이 주류화 되는데, 『주간희망』은 콩트뿐 아니라 만화, 번역, 논설을 싣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논설인 경우, 문화 분야에 독자 투고임을 밝혀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주간희망』의 독자층이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간희망』의 운영 면에서는 발행요일의 변경과 판매방식의 개발이 매우 특징적이다. 발행요일의 변경은 제16호부터 단행되었으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바뀌었다. 요일 변경은 도시 직장인의 생활패턴에 맞춘 판매 전략의 일환이다. 편집진은 “금요일에 발행하여 늦어도 토요일 오전 중에는 전국 각지에 고루 배송되어 각 서점에 진열, 독자 여러분께서 토요일의 반나절 집무를 끝내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실 수 있게 하여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여러분의 벗이 되어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⁶⁵⁾라 적시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도시 직장인의 반복적 생활패턴을 현시하지만 그들이 주말의 여가시간을 주간지로 소비하도록 독려한 측면이 강하다. 『주간희망』의 발행, 배송, 판매의 전 과정을 제시하여 주간지가 합리적 소비재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발행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독자 대중의 소외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맹점으로 작용한다. 다르게 말하면 『주간희망』이 공략한 주요 독자층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이었고, 그만큼 정기 구독자층이 두텁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발행방식은 1964년 김용장이 창간에 참여했던 『주간한국』에 이어졌다.⁶⁶⁾

특히 『주간희망』의 독자적 판매방식의 개발은 무인판매 실시에 놓여 있다. 『주간희망』은 1956년 9월 8일 제37호부터 처음으로 무인판매대를 통해 판매를 실시하였다. 당시 일간지에서 “주인이 없는 ‘가게(?)’에서 정가대로 금액을 넣고 마음대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문화시설”⁶⁷⁾로 규정할 만큼 무인판매대 설치의 획기적인 판매 전략이자 새로운 문화체험 방식이었다. 당시 월간지의 판매 형태는 정기독자와 서점판매가 일

65) 「편집자의 편지」, 『주간희망』 제128호, 1958.6.6, 42쪽.

66) 전상기, 「1960년대 주간지의 매체적 위상-『주간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8, 253쪽.

67) 「휴지통」, 『동아일보』, 1956.9.9, 3면.

상적이었고,⁶⁸⁾ 『주간희망』도 그러한 방식에 따랐다. 가관점 판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운데 무인판매대 설치에 『주간희망』 애독자가 아니라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 시내의 변화가 10개소에 시범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김용장은 무인판매대 실적을 이전처럼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독자대중의 관심을 더욱 독려하였다. 그럼에도 무인판매대 실적은 곧두박질쳐 제65호에 이르면 분실이 판매의 3배 수준에 달했다. 무인판매대의 장기간 운영은 잡지사 운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대중에게 『주간희망』의 브랜드 이미지를 뚜렷하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3-2. 편집노선의 부침과 매체전략의 공전(空轉)

그렇다면 2대 김원기 편집국장 재임 시절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은 어떠한가. 편집국장 김원기는 창간에서 폐간에 이르는 동안 『주간희망』과 함께 했으며, 그만큼 『주간희망』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남달랐다. 재임기간 또한 1대 편집국장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했으며, 편집노선의 변화도 적잖았다. 문제는 『주간희망』의 도전과 위상 강화에 얼마나 긍정적 역할을 담당했는가하는 점이다. 『주간희망』 창간 2주년과 100회 기념 특집 등 굵직한 계기들이 있었던 만큼 도약의 계기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주간희망』의 편집노선은 일신(一新)보다 부침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편집국장 교체 이후 『주간희망』의 편집노선 혹은 편집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독자의 요구가 적지 않았고, 해설저널리즘의 표방은 그

68) 소중섭, 「시사주간지의 가관 판매를 좌우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시사저널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8, 26-28쪽.

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럼에도 편집노선의 자기갱신은 『편집후기』를 통해 수차례 거론될 만큼 흔들림이 두드러졌다.⁶⁹⁾ 이러한 가운데 매체전략도 기존의 시도들이 일부 갱신되거나 담보하는 수준이었으며, 지속성마저 유지하기 힘들었다.

우선, 해설저널리즘의 특성화전략은 독자대중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좌충우돌하였다. 특징적인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면, 하나는 뉴스의 종합에 편중되는 가운데 논평이 점차 약화되었다. 뉴스의 종합은 보도성과 다양성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었다. 국내 뉴스는 취재가 요구되는 일반뉴스가 확대되는 긍정적 일면 뒤에 지역 특정 일간지의 화제성 사건기사를 종합 편집한 ‘로컬뉴스’가 제58호부터 신설·운영되었다. 국외 뉴스는 창간호에서 했던 ‘소식’란을 제57호부터 재개하는 한편 기존의 ‘뉴스의 저류’를 병행함으로써 집약적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들 코너는 중첩된 성격과 제명의 잦은 변경, 그리고 단속적(斷續的) 운영 탓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것은 논평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논평의 재편은 해석적 지평을 담당했던 ‘조류’가 제66호로 폐지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제32호에 신설된 ‘신문단평’이 신문사의 정파성 혹은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면, 제66호에 신설된 ‘신문의 거리’는 신문언론인의 해이한 자세를 비판하였다.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적 지평의 확대를 꾀했던 ‘조류’에 견준다면, 신설된 두 코너는 비판 대상의 우회와 비판 강도의 약화가 불가피했다. 더구나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제58호와 제72호로 각각 폐지된다. 그러한 양상은 사회비평을 내세

69) 유독 2대 편집국장 시기 『편집후기』들은 편집노선의 특성과 자기갱신에 대한 설명이 자주 거론된다. 이전 시기 “편집방침의 개혁”을 운운한 논의가 한두 차례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만큼 해설저널리즘이 안정화 국면과 점점 멀어져갔음을 방증한다.

운 ‘수시수상’과 ‘무화과’, ‘기자염필’의 운영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수시수상’은 창간호의 ‘유상무상’을 재매개하여 제59호에 신설되었지만 제68호까지 운영되다가 중지되었고, 제102호부터 재개되었으나 또다시 제114호로 폐지되고 만다. 그만큼 단속성(斷續性)이 두드러진 가운데 논평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셈이다.

다른 하나는, 해설저널리즘의 지평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었지만 결실을 맺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설저널리즘의 전문성을 되살린 코너는 100회 기념특집호부터 마련된 ‘금주의 제언’이다. ‘금주의 제언’은 다음 호부터 ‘금주의 주장’으로 이름을 바꿀 만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주일에 한 분야씩 돌아가며 논평하는 방식이었다. 신설 당시 초빙된 전문가들은 조풍연, 이헌구, 천관우, 황병준, 장후영, 고제승, 정충량이었으며,⁷⁰⁾ 외부 기고자일 경우만 기명제(記名制)를 따랐다. ‘금주의 제언’은 해설저널리즘의 전문화를 꾀했던 ‘주간시평’을 재매개하였지만, 지면의 축소 탓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제명(題名)을 ‘일주일언(一周一言)’으로 바꾼 118호부터 필진이 관련분야 종사자나 편집위원 등으로 선화하면서 해설저널리즘의 전문성은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117호부터 ‘금주의 토폭’이 특집을 대체하면서 심층 취재를 기반으로 한 해설저널리즘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렇듯 2대 편집국장 시기 해설저널리즘의 특성화 전략은 기존 코너를 재매개하거나 변형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지도 못했다. 그만큼 『주간희망』 본연의 해설저널리즘은 약화되어 갔으며, 급기야 혁신호를 기점으로 명맥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다음으로, 해설저널리즘의 대중성 강화전략은 독자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재미 추구를 본격화하였다. 기존의 세 가지 방식

70) 『금주의 제언』, 『주간희망』 제100호, 1957.11.22, 3쪽.

을 따르면서도 코너의 성격이나 비중에서 일정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뉴스의 연성화는 다양한 층위에서 양적 증대가 두드러졌다. 독자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화제성 기사 설정 방식부터 난해한 기사에 대한 독자대중의 이해를 돕는 것까지 층위가 다변화된 것이다. 기존의 ‘금주의 화제’와 ‘뉴스스토리’는 교차 편집방식으로 보도성과 화제성을 병행하는 가운데 제102호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금주의 화제’는 국내외 일반기사와 결합한 코너로 재편되면서 ‘화제성’에 주목하는 수준에 그쳤고, 뒤이은 제117호부터 특집을 대신한 ‘금주의 토픽’으로 격상되면서 독자대중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도 조력한다. 하지만 변화의 계기가 없었던 ‘뉴스스토리’는 여성의 성과 사랑에 주목한 화제성 기사가 자주 거론될 만큼 독자대중의 재미 추구에 더 주력하는 양상을 띤다. 이 시기 국내외 뉴스 또한 ‘킨제이 보고서’나 ‘수기’ 등이 곧잘 연재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인하고 재미를 배가시켰다. 그만큼 뉴스의 연성화는 창간 초기 독자대중의 자발적 여론 구성에 조력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점차 벗어나 단순 재미나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둘째, 인터뷰 기사가 축소되는 가운데 다양한 발언 코너들이 대중성 확보에 역할을 다했다. 인터뷰 기사는 고정란인 ‘금주의 인물’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전 시기 인터뷰 코너들이 속속 폐지되는 가운데 『주간희망』을 대표하는 ‘희망방담’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제102호를 끝으로 ‘희망방담’조차 폐지된 후 『주간희망』의 인터뷰 기사는 특유의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도약을 꾀하지 못했다. ‘코주부 인터뷰’에 이어 ‘희망인터뷰’를 이어가는 한편 혁신후 이후 『희망』에서 재매개한 ‘텔레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신설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인터뷰 기사의 공신력이 대중성만큼이나 전문성을 내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한다.

특히 이 시기 신설된 발언 코너들이 인터뷰 기사를 대신하며 독자대중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다. “학생의 소리”를 부제로 내건 ‘푸른 산맥’을 필두로 현직 국회의원의 소신을 피력한 ‘선량의 일언’과 전직 국회의원의 사임을 둘러싼 소회를 드러낸 ‘내게도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둘러싼 독자 “여러분을 위해 또 위정자를 위해 신설한 건설적인 중계대”인 ‘장관에게 한 마디’와 편집진 담당의 ‘딱다구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코너는 대상과 방식을 달리하며 관점을 다각화하고 독자대중에게 새로운 관심을 환기했다. 공론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운영방식의 일과성과 단속성⁷¹⁾으로 여론 조성과 대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셋째, 대중교양과 취향 관련 기사는 코너별로 변화의 진폭이 컸다. 영화 코너는 ‘신영화’가 꾸준히 게재되는 가운데 기존의 ‘영화평’과 제62호에 신설된 ‘영화소설’이 들쭉날쭉했다. 이 시기 문화면은 관련 분야의 기사들이 급증하였지만, 제81호에 ‘문화레터’가 신설된 이후 대폭 축소되었다. 그마저 제106호로 폐지되자 문화면은 과학과 스포츠 관련 기사만 일부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부인’ 코너들은 제100호 기념특집 이후 다양하게 신설되지만, 취미 기사를 제외하면 일과적이고 단속적 운영에 그쳤다. 장편소설 연재는 제89호 이무영의 『빙화』를 끝으로 폐지되었다가 창간2주년 기념특집 제105호부터 박용구의 『삼별초』 연재가 재개되

71) 발언 코너들의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푸른 산맥’은 제68호부터 제83호까지, ‘선량의 일언’은 제77호부터 제86호까지, ‘딱다구리’는 제94호부터 제131호까지, ‘장관에게 한 마디’는 제102호부터 제115호까지 각각 운영되었다. 가장 단속적 코너는 ‘내게도 할 말이 있다’로 제 77호에 신설되어 제85호까지 운영되다 중단되었고 제 101호부터 재개되었다가 제103호로 마무리되었다. 다른 코너들도 운영기간 동안 휴재가 적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었다. 하지만 제126호부터 연재소설은 짙막한 번역소설로 대체되었고 혁신호 이후 단편 릴레이소설 방식으로 재편된다.

혁신호를 전후한 시기 『주간희망』은 신설된 ‘야사 시리즈’, ‘꽃다발 미담’에 더해 야담, 실화, 수필, 콩트, 동화, 르포 등 다양한 독물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면면들은 「독자의 편지」에 드러나듯,⁷²⁾ 독자대중으로부터 『주간희망』의 정체성에 비판을 서슴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2대 편집국장 시기에 『주간희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발행기일의 지연과 발행면수 축소 등 악재가 상존했다. 재출발 의지를 다졌던 ‘혁신호’ 발간 이후 오히려 『주간희망』은 해설저널리즘의 급격한 약화 속에 『희망』과 차별화되지 못한 편집체계를 선보이며 영락하고 만다.

4. 혁신의 딜레마와 『주간희망』의 의의

1958년 10월 『주간희망』은 예고 없이 폐간되었다. ‘혁신호’로 거듭나고자 했던 창대한 희망과는 달리 결국 폐간의 운명을 맞는다. 당시 상황을 사장 김종완은 직영 인쇄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의 결과였다고 밝힌 바 있다.⁷³⁾ 직영 인쇄시설은 이승만 정부 산하 부흥부국의 도움으로 OEC원조를 받아 1958년 봄 완공될 예정이었다.⁷⁴⁾ 편집동

72) 「독자의 편지」, 『주간희망』 제135호, 1958.9.19, 66쪽. 「독자의 편지」는 “발행일자를 지켜라”, “주문 몇 가지”, “하루속히 주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로 나뉘져 있다. 『주간희망』은 혁신호를 내건 제131호부터 월 2회 발행과 대폭 증면을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세 명의 독자가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다. 특히 둘째와 셋째 항목은 시사종합주간지 『주간희망』의 특성을 일탈하고 휴간 상태였던 대중지 『희망』의 면면을 따르는 데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73) 김종완, 「속간에 즈음하여」, 『월간희망』 속간 신년호, 1962.1.1, 39쪽.

74) 김종완, 「창간 2주년에 즈음하여-고난의 역정을 회고하며」, 『주간희망』 제105호,

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계획이 지연되는 가운데 월간 『희망』의 휴간에 이어 『주간희망』이 폐간되었다. 이 시기 희망사의 연이은 잡지 휴간과 폐간에 석연찮은 부분이 존재한다. 직영 인쇄시설이 부재했던 동안에도 『주간희망』이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유독 1958년 벽두에만 “연말연초 공장의 휴일관계” 혹은 “공장시설 문제” 등으로 발행일이 지연되었던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은 김종완의 판단과 다른 국면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 3백에 가까운 월간물 중 활기를 띠기 시작한 직장잡지·기관지·교지 등을 제외하고는 나왔다가는 사라지고 하는 잡지계에서 유독 “희망” “명랑” “아리랑” “아담” “실화” 등 이른바 대중오락잡지만이 판로의 실력을 과시했던만 금년에 이르러서는 독자의 질적 향상과 사회의 안정화의 탓인지 고개를 수그리기 시작해서 허덕이는 고경(苦境)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희망”이 휴간되고 다른 유사지도 부침을 거듭하다 미봉책으로 소설지라는 형식으로 “소설계” “소설공원” “대중문예” 등이 등장하였으나 참신한 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독자의 구미를 당기게 하지도 못한 채 “아담”과 “실화”의 폐간처분이라는 불상사를 보고야 말았다.⁷⁵⁾

인용문은 1958년 대중지 발간의 정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당시 “『희망』이 휴간되고 다른 유사지도 부침을 거듭”했던 잡지출판계의 모습과 좌절을 잘 보여준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판로의 실력을 과시”했던 『희망』을 비롯한 대중잡지의 휴간과 폐간 원인을 “독자의 질적 향상”과 “사회의 안정화”로 들고 있다.

1958년에 접어들면서 『희망』은 돌연 “건전한 대중오락지”를 내세웠고, 특히 건전성의 중심에 시의성을 앞세워 『주간희망』의 편집체계를 상당 부분 변형시켜 수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스릴과 로맨스로 충만한 오락

1957.12.27, 56쪽.

75) 『(정리) 1958년도 집대성-간행물의 '뭉'』, 『경향신문』, 1958.12.14, 4면.

지의 결정판”을 편집노선으로 내세운 지 불과 3달 후의 일이었다. 심지어 실화를 앞세운 대중문예현상공모를 발표해야 했던 시점에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주간희망』의 혁신호 전환은 그런 『희망』이 휴간된 직후 7월 10일에 이루어졌다. 『주간희망』의 혁신은 발행주기와 특유의 편집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1958년 벽두 『희망』의 급격한 방향 전환과 맞먹었다. 발행주기를 월 2회로 조정하고 편집노선 또한 해설저널리즘을 후퇴시키는 대신 오락성을 앞세운 것으로, 이는 사실상 시사종합주간지로서의 면모를 상실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간희망』의 혁신도 『희망』의 대체도 아닌, 그러니까 『주간희망』과 『희망』을 상호 결합시킨 어정쩡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따라서 결국 3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간되고 말았다. 『주간희망』의 혁신호 전환과 폐간은 1958년 중반 희망사의 자기갱신의 참담한 결과로 비춰지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놓여 있었다.

1958년 “사회의 안전화”로 대표되는 당대 상황이 희망사를 “고경(苦境)”으로 내모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독자의 질적 향상”은 표면적인 명분이었을 지도 모른다. 만약 독자 수준이 문제되었다면, 시사주간지 특유의 성격을 상실하고 오락성을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안전화를 내세운 정부의 언론 탄압과 일련의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본다. 1958년 벽두 진보당사건은 정국을 얼어붙게 하였고, 그것은 반공주의를 앞세운 이승만 정권의 언론탄압에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이승만 정권은 3대 정부통령선거 이후 약화된 정치적 입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1957년 국민반 조성과 도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정권 재창출에 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계가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진보당사건을 빌미 삼아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를 내

세워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는다. 그것은 언론계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국정보호임시조치법안’과 ‘출판물단속법안’과 같은 언론탄압정책보다 강력한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이 주도한 “사회의 안정화” 논리는 잡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1958년 유력 잡지사는 기존의 잡지연쇄전략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50년대 대중지를 대표하던 『희망』과 새로움을 더했던 시사종합주간지 『주간희망』은 희망사의 자기갱신과 무관하게 정권의 주요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희망사의 직영 인쇄시설이 완공되었음에도, 준공과정에서 서류를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 과정에서 희망사는 김종완의 회고처럼 경영 악화로 치달았고, 결국 『희망』의 휴간에 이어 『주간희망』까지도 폐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주간희망』의 폐간에 대한 기존 평가는 1950년대 희망사의 매체 환경을 문제 삼아 왔다. 당시 사회현실은 주간지를 지속시킬 사회문화적 역량이 부족했으며, 특히 사회문화적 역량의 부족은 두렵지 못한 독자층 뿐 아니라 경영능력과 편집능력 등 희망사의 미숙함에 따른 것으로 본다.⁷⁶⁾ 범박하게 본다면 1950년대 매체 환경이 주간지시대를 열기에 시기상조였다는 것이다.⁷⁷⁾ 그러나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현재의 시각에서 희망사는 열악한 측면이 적지 않지만, 당대의 매체 환경에 견주어 본다면 미숙함이나 시기상조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오히려 희망사의 그런 점이 우회적인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간희망』은 기존의 평가처럼 1950년대 시사주간지의 존립 가능성

76) 이중한, 『주간誌·紙의 사회적 기능』, 『언론중재』 1983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59쪽.

77) 정진석, 『한국잡지발달사』, 조용중 편, 『세계의 잡지』, 한국언론연구원, 1988, 75쪽.

을 보여준 데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주간지로 자리매김하였다. 1950년대 중반 사회현실은 팽팽한 냉전논리와 부정확한 원조경제,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욕망이 뒤엉켜 좀처럼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간희망』은 저널리즘 정신과 상업화 요구를 균형 있게 운영하여 1950년대 특유의 주간지문화를 마련했다. 『주간희망』은 희망사의 상업적인 잡지연쇄전략의 일환이었지만, 『새한민보』의 저널리즘 정신을 계승한 동시에 『한국일보 일요판』의 상업성을 재매개하여 신잡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1960년대 옐로저널리즘으로 비판받는 주간지와도 구별되는 시사종합주간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간희망』은 1960년대 주간지시대를 이끌 인프라 구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편집동인의 과반이 1960년대 주간지 창간과 발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대표적 예로 『주간한국』 창간에 김용장, 박갑천, 이진섭, 『주간조선』 창간에 조덕송, 『선데이서울』과 『주간스포츠』 창간에 김원기, 임진수가 각각 참여했다.⁷⁸⁾ 1960년대 주간지시대는 1950년대 『주간희망』이 없었다면 좀처럼 실현되기 힘들었다 하겠다. 물론 시사종합주간지는 시대정신과 창조적 기획 능력이 요구되며, 그것은 지금이라도 다를 바 없다. 편집노선의 자기갱신과 매체전략의 다각화는 비단 1950년대 희망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잡지사에서 『주간희망』은 전통과 새로움, 저널리즘 정신과 상업성, 편집동인과 독자대중이 오가는 자리에 기억해야 할 시사종합주간지임에 틀림없다.

78) 김용장, 『『주간한국』, 그 전과 후(상)』, 『관훈저널』 제29호, 관훈클럽, 1979, 247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주간희망』 제1호-제135호, 1955.12.26-1958.9.19.(결호 포함)
『희망』 제1호-제88호, 1951.7-1962.3.(결호 포함)
『새한민보』 제1호-제63호, 1947.6-1950.2.(결호 포함)
『한국일보』(일요판) 1954.11.7-1956.12.23.
서울신문사 편, 『주간서울』, 케포이북스, 2009.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1955.1.1-1958.12.31)

2. 논문과 단행본

- 권보드래·김성환·김원·천정환·황병주,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5.
김성환, 『1970년대 대중서사의 전략적 변화』, 『현대문학의 연구』 제5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53-192쪽.
김소형, 『한국신문의 인터뷰기사 도입과 변천에 관한 연구: 1890-1990년대』,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영희·박용규, 『한국현대언론인열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김용장, 『『주간한국』, 그 전과 후(상)』, 『관훈저널』 제29호, 관훈클럽, 1979, 241-252쪽.
_____, 『『주간한국』, 그 전과 후(하)』, 『관훈저널』 제30호, 관훈클럽, 1980, 149-166쪽.
박용규, 『미군정기 중간파 언론설의식의 <새한민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언론』 제2호, 한국언론정보학회, 1992, 164-196쪽.
박진우·이혜미·김규찬, 『한국의 시사잡지 저널리즘의 위기진단』, 『한국출판학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출판학회, 2012, 5-30쪽.
소종섭, 『시사주간지의 가판 판매를 좌우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시사저널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8.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182-187쪽.
_____, 『잡지 출판인 김종완 연보』, 『근대서지』 제9호, 근대서지학회, 2014, 121-139쪽.
연윤희, 『『선데이서울』의 창간과 대중 독서물의 재편』,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259-291쪽.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제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261-305쪽.

- _____,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0호, 상허학회, 2010, 397-454쪽.
- _____, 『잡지미디어, 불온, 대중교양-1960년대 복간 『신동아』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7호, 한국근대학회, 2013, 385-440쪽.
- 이성욱, 『쇼쇼쇼-김추자, 선데이서울 계다가 긴급조치』, 생각의나무, 2004.
- 이중환, 『주간誌·紙의 사회적 기능』, 『언론중재』 1983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54-61쪽.
- 임근수, 『언론과 역사』, 정음사, 1984.
- 임종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제44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3, 91-136쪽.
- 장은미,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제도화와 남성적 재공간화 과정』,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전상기, 『1960년대 주간지의 매체적 위상-『주간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8, 225-258쪽.
- 정진석, 『광복 후 최초의 시사 주간지에 담긴 시대상』, 서울신문사 편, 『주간서울』, 케포이북스, 2009, iii-vi쪽.
- _____, 『한국잡지발달사』, 조용중 편, 『세계의 잡지』, 한국언론연구원, 1988, 49-79쪽.
- 조용운, 『즉흥·선정에만 급급-〈週刊紙(誌)〉』, 『출판학연구』 제19호, 한국출판학회, 1974, 66-68쪽.
- 채 백, 『주간잡지의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안』, 김옥조 편, 『한국의 주간잡지-제작 환경 실태조사·내용분석』, 한국언론연구원, 1995, 235-296쪽.
- _____, 『부산언론사연구』, 산지니, 2012.
- 최미진, 『매체 지형의 변화와 신문소설의 위상(1)』, 『대중서사연구』 제27호, 대중서사학회, 2012, 7-36쪽.
- _____, 『매체 지형의 변화와 신문소설의 위상(2)』,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99-225쪽.
- Roland Wolsely, *Understanding Magazine*, Iowa State Univ Press, 1966.
- M. Quigley, "Magazine cover roulette: What sells, what bombs", In S. Biagi, *Media/Reader: Perspectives on mass media industries, effects, and issue*, Belmont, CA: Wadsworth, 1993.
- Compaine, B. M. et.al, *Who owns the media?: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the mass communication industry*, White Plains: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 Inc., 1982.

Abstract

Challenges and Media Strategies of the *Weekly Huimang(Hope)*

Choi, Mi-Jin(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media orientations and strategies of *Weekly Huimang(Hope)* by empirically reconstructing it. This magazine was first published by Huimangsa in 1955 as a part of an aggressive magazine chain strategy. It was published regularly for over two years and had a literary coterie and editorial system that consisted mainly of journalists. With the slogan of "A magazine like a newspaper, a newspaper like a magazine," the editorial line of the *Weekly Huimang(Hope)* was in interpretative journalism, which inherited the journalism spirit of the *Saehan Minbo* (This magazine was first issued in 1947). The purpose of the *Weekly Huimang(Hope)* was to contribute to its readers' demand for knowledge and literary arts while getting well again the fairness and publicness of journalism, and to make a new culture of public opinion.

The *Weekly Huimang(Hope)* had a media strategy that was fixated on enhancing the uniqueness and popularity of interpretative journalism, which operated experimentally and stably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editorial director. The strategy of interpretative journalism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a high quality public opinion by increasing the weight of commentary and diversifying the specializations. The strategy for enhancing the popularity of interpretative journalism involved softening the news, expanding the interview articles, and presenting a diversification of pop arts and tastes. This further enhanced the spontaneity and accessibility of the public readers while revealing the point of contact with the commercialization strategy of the *Hankook Ilbo* Sunday edition (first issued in 1954).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the second editorial director, there was a frequent publication delay due to unfavorable factors, such as the severe allegation of line editing and the transfer of the literary coteries. Starting with its innovative issue, the *Weekly Huimang(Hope)* attempted to rise again, but it was discontinued without notice on September 1958 amid management aggravation and indirect political pressure.

Nevertheless, the *Weekly Huimang(Hope)* is significant because it reflects the magazine-culture of the 1950s. It interacted with its readers with a journalism spirit that magazines should pursue in the rapidly changing post-war society. It also demonstrated a creative planning ability and aggressive operation strategy that enabled it to cope with commercialization demands. Furthermore, it cultivated human infra and developed cultural contents that led to the age of weekly magazines in the 1960s.

(Key Words: *Weekly Huimang(Hope)*, Saehan Minbo, Huimangsa, media strategy, edit line, literary coterie and editorial system, interpretative journalism, professionalism, popularity, commerciality)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